

광복 80년 신안 하의도에 피어난 ‘보훈의 섬’

한국섬진흥원 등 5개 기관 보물섬 행사 개최

보훈대상자 거주시설 개선·실버카 전달 훈훈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 ‘보훈으로 밝게 물든 빛나는 섬마을 이야기’, 이른바 ‘보물섬’ 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이다. 외딴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국가의 책임’이라는 보훈의 본질을 조명하며 울림을 주고 있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조성환)은 18일,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신안군, 신안소방서 등 4개 기관과 함께 하의도에서 ‘보물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복 8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섬 지역 보훈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이동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 당일에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15명의 어르신에게 실버카를 전달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경청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를 준비한 각 기관은 1주일 전부터 하의도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18가구를 미리 방문해 가구별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설계했다.

기관별 역할도 분담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한국섬진흥원은 행사 전반의 기획·운영을 총괄했고,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은 대상자 선정과 참여 독려를 담당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LED전등 교체와 전기설비 점검을, 신안군은 행정선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신안소방서는 화재경보기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각각 수행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보훈대상자는 총 83만2601명이며, 이 중 전남 지



한국섬진흥원은 18일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신안군, 신안소방서 등 4개 기관과 함께 하의도에서 ‘보물섬’ 행사를 개최했다.

역에는 3만4024명이 거주한다. 그 가운데 약 1500여명은 섬 지역에 살고 있으며, 하의도에는 전상군경과 참전유공자, 전몰·공상군경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18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중이다.

이번 행사는 그들의 불편한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심세하게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섬 지역에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현실로 구현된 셈이다.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news1@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여수시니어클럽,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어르신 1500여명과 ‘섬섬여수 청춘을 걷다’ 진행

여수시니어클럽(관장 이준)이 지난 17일 엑스포장 디지털 갤러리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1500여명과 ‘섬섬여수 청춘을 걷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걷기 행사는 엑스포 주제관을 거쳐 아쿠아플라넷을 반환점으로 하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향일암·보문복지회 자원봉사자 60여명과 여수경찰서, 안전보건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질서유지·안전 확보에 힘썼다.

반환점에서는 우도풍물굿보존회가 축하 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으며, 참여 어르신들은 걷기 행사 이후 아쿠아플라넷을 관람하고 에버랜드 웨딩홀에서 제공한 점심 식사 후에 안



전하게 귀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날씨가 그리 덥지 않고 걷는 구간도 적당해서 좋았다”며 “운동 후에 먹는 밥은 정말 맛있었고 아쿠아리움 구경도 재밌었다. 직원들이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후기를 남겼다.

이준 여수시니어클럽 관장은 “행사 전날까지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다”며 “남은 올해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지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뛰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성군-한국도로공사, ‘도시숲’ 조성 협약 체결

남장성분기점에 이팝·배롱나무 등 식재

장성군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김한중 장성군수, 김준영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총 12억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남장성분기점 램프구간)에 이팝나무, 배롱나무, 너타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도시숲은 차량 매연과 분진을 차단·흡착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탄소 저장,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삭막한 고속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향사된 경관을 선보여, 풍부한 산림자원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장성의 장점을 알릴 수도 있다.

김한중 군수는 “이번 협약이 장성군의 ‘천년숲’ 구현과 한국도로공사 ‘ESG경영’을 실현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며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주)무공엔지니어링, 나주 금천면에 300만원 기탁

나주시는 최근 김지훈 (주)무공엔지니어링 대표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금천면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은 지역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금천면 특화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지훈 대표는 지난해에도 금천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3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지훈 대표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으로서 작게나마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지영 금천면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나



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후원금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6·25 참전용사 초청 위문품 전달식

참전용사 30가구 쌀·삼계탕 등 기탁

농협 전남본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과 이종원 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부현·이영규씨 등 참전용사 30가구에 쌀(10kg)과 삼계탕(5kg) 30세트를 전달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참전용사 여러분들을 비롯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부음

▲구회권씨 별세. 구영규(광남일보 지역사회부 화순지역담당·국장대우)·영미·현미씨 부친상, 고현석·기경원씨 장인상, 이이순씨 시부상=17일 오전, 화순고려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19일 오전 9시, 061-375-4500.

운세 (음력 5월 24일)

48년생 병은 마을에서 생긴다
60년생 지인과 돈 거래는 신중히 할때
72년생 부부 이해와 사랑이 오갈 때
84년생 자녀 문제가 순조롭게 처리된다
96년생 이성 만남이 것이 부담이나 피하라

51년생 문서로 뭇 벼에 행운을 잡는다
63년생 배우자에 갈등 목표 하나로 모을 때
75년생 귀인 덕에 금전운이 좋은 날
87년생 이성하고 윤행하면 망신수
99년생 지출 줄이고 겸손한 생활이 필요

54년생 신경을 자각하더라도 무관심 하라
66년생 감정이 앞서니 마찰이 생긴다
78년생 믿기지 않는 문서가 들어 온다
90년생 급하고도 서두르면 틀어지게 된다

57년생 직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
69년생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 보라
81년생 말 다툼을 조심하라 송사가 걱정
93년생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쳐라

49년생 금전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61년생 충격을 받았지만 큰 탈은 앓을 것
73년생 새로운 일을 도입하면 어려움에 봉착
85년생 동료로부터 도움받아 일이 해결된다
97년생 허영과 사치하는 금물

52년생 마음이 너그로우면 몸 편안하다
64년생 직원은 소용돌이 감을 끌지 마라
76년생 이성과 차라에 동승하면 망신수
88년생 예상하지 못한 금전이 나간다

55년생 후배 도움으로 성공적인 하루
67년생 지인과 더불어 일을 도모하라
79년생 골치 아픈일이 생기지만 해결 된다
91년생 금전 윤행이 잘 된다

58년생 부동산 기반을 세우는데 좋은 계기
70년생 귀인을 만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82년생 부모님 마음에 내 마음 같지 않음
94년생 배신 당할 수 있으니 믿지마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문서에 도장을 신중히 찍어라
62년생 사람 때문에 뜻밖의 행운을 잡는 날
74년생 배우자로 인한 손해수 조심
86년생 친구와 다툼이 있다 참아라
98년생 이성으로 인한 욕망이 샘솟는 날

53년생 추구하던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
65년생 사업에 불굴의 투지가 필요한 시기
77년생 지인 때문에 자금이 막힌다
89년생 처가댁 친지와 동업하면 부부 불화

56년생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것
68년생 중간에 돈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
80년생 오늘 하루는 명물 인생이 될 수 있다
92년생 친구 일이 허망하게 끝난다

59년생 예상치 못한 금전 지출이 생긴다
71년생 가족 화목하니 직장일 일사천리
83년생 무리한 계획의 진행은 실패
95년생 친구에게 돈쓰고 좋은 말 듣기 어렵다